



해외 닭고기 시장 동향 및 전망



박진호 대표이사
(주)메리트무역
merittrading@hanafos.com

“수입육 가격이 비싸서 저렴한 국내산 부분육을 사용하고 있다.”

재미있는 현상이다. 물론 모든 품목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넓적다리(Bone In Thigh), 정육(Bone Less Leg Meat), 가슴살(Brest Meat), 심지어 날개까지 수입육 가격과 경쟁적인 국내산 냉동육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해외시장의 경우 1/4분기 시장가격이 회복된 상태이지만, 한국의 경우 누적된 냉동 비축분과 생계시세 약화로 저가의 상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2/4분기 해외시장의 흐름 역시 고공행진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홍콩에서의 거래가격은 1/4분기와 비교해서 15~20% 상승했으며, 3/4분기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생계시세가 좋았다면 2004년도의 가격폭등 상태와 비슷한 양상도 예견되었으나, 생계시세의 흐름으로 보아 그렇게까지는 쉽지 않을 듯 싶다.

수입업체들은 큰 고민에 빠져 있다. ‘100원 이익 보려고 300원의 예상위험을 감수할 것인가’가 그것이다. 최근 3개월간의 수입량(검역기준)을 살펴보면 이를 더욱 더 근거 있게 한다. 평균 5,000톤 정도 수입되는 물량들이 3,000톤 이하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수입육 부족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국내산 냉동비축물량들이 소진되어 가면서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게 될 것이다. 만일 입식 물량만 적당하게 조절된다면, 시장은 또 한 번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나, 대부분의 분들이 우려하는 대로 될 것 같다.

미국

좀처럼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5월 선적 왕장각(Jumbo Whole Legs)의 원가는 1,700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넓적다리(Bone In Thigh)는 1,600원, 사이즈 장각의 경우 2,000원대까지 형성하고 있다. 가 수요에 의해 한국에서 주문이 시작될 경우, 그 가격은 크게 오를 것이다.

브라질

최근 러시아와 홍콩수출가격이 크게 상승해 브라질 담당자들이 여유있는 모습이다. 한국의 오피가격 또한 상승해서 정육(Bone Less Leg Meat)의 경우 1,900~2,000불대를 형성하고 있고, 날개의 경우 2,300불대까지 형성하고 있다.

미국과 브라질 가격상승은 국제시장에서 이미 일반화되었으며, 러시아와 중국시장의 수요에 따라 가격흐름이 정해질 것 같다.

덴마크

로즈(Rose Poultry)의 날개가 공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윙(Middle Wings)과 봉(Wing Sticks)을 절단한 경우 수출이 좋게 나오고 있으며, 통날개(Three Joint Wings)의 경우 비품률이 1% 미만으로 나오기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 고객사의 보호를 위해 4월과 5월 선적분 일체를 제3국으로 판매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얻고 있다.

장각(Regular Whole Legs)의 경우 할랄(Halal) 제품들이 속속 부산항에 입고되고 있다.

일반제품들과 비교해서 kg당 400~500원 비싸지만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서 좋은 마진에 팔리고 있는 듯하다.

중국

최근 들어 일본에서 중국산 가공품이 대량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800~1,000톤 정도 꾸준히 수입되고 있으며, 그 상품군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1/4분기 가격과 비교해서 톤당 300불 정도 가격이 상승됐으며, 중국내 생계시세 또한 좋은 값에 유지되고 있다.

결론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를 갖고 있다. 어린이날을 비롯한 가정의 날 행사를 통해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며, '6월 복특수'를 통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다행스럽게 생계시세가 1,100원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이를 뒷받침해준다. 종계와 입식물량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모든 참여자분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시장조절기능을 믿어보고자 한다.

태풍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 모든 분들이 항해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5월은 보다 좋은 일이 많았으면 한다. 